

신라 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

- 중대와 하대를 중심으로 -

金 福 順*

| | |
|-----------------------|---------------------|
| <目 次> | |
| I. 머 리 말 | III. 왕권과 신앙, 그 상관관계 |
| II. 신라 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 IV. 맺 음 말 |

[국문초록] 신라 중대와 하대의 불교사 연구를 정리해 보려는 것이 본 고의 요지이다. 신라 중대의 불교 연구는 원효교학의 완성과 화엄종 전교로, 하대의 불교연구는 선종 전래로 획을 그을 수 있다. 중대의 원효교학은 화엄종, 법상종과 함께 교학불교의 번성을 이루었다. 그 내용으로는 원효와 의상, 태현과 진표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일실된 저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의상과 화엄종은 왕권과의 관계, 화엄교리, 신앙 등에 관한 저술이 여럿 나왔다. 신라 하대의 불교연구는 선종에 집중되어 9산선문과 개별산문이 호족 내지 왕실과 결합된 사실이 나말여초의 변화상과 맞물려 연구되었다. 이는 곧 선사비문의 탐구로 이어져 번역과 주석 작업이 잇달아 일어났고, 이에 힘입어 정치, 사회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라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놓고 국가권력과 긴밀했는가 미약했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가장 큰 논점이었다. 특히 지배층과 승려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논고들이 계율관, 저술, 자문역 등의 고찰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불교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정토신앙,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미륵신앙 등이 별개의 연구주제로 삼아졌다. 이 연구는 신라사회의 일면을 밝혀 이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또한 불교의 유입이 중국을 통해 법상종, 화엄종, 밀교, 선종 등 다양한 종파 형태로 들어와 신라에도 종파불교가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있고 이와는 달리 이들을 회통시켜 통불교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도출되어 있다. 신라의 불교가 국교였다는 사실은 승관제와 함께 불교통제기관의 규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여러 논고가 나왔다. 이 문제는 근래까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전불 7처가람설이 불국토사상의 형성과 관련하여 언급되기도 하고, 달구벌로의 천도문제와 관련시켜 이에 반대한 귀족들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신라의 유적 가운데 사찰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개별 사찰의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역적인 고찰이 있었다. 최근 생명 윤리에 대한 관심으로 신라 불교의 생명관, 생사관, 죽음관 등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여성사의 일환으로 신라 여성들의 신앙생활과 비구니들의 수행모습이 고구된 바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researched to arrange studies of the present condition about Buddhism of Middle and Late Silla Dynasty. The study of Buddhism in Middle Silla Dynasty is included to accomplish Won-hyo's Creed, transplantation of the Hwa-en Sect, and in Late Silla Dynasty makes a stroke to be hand down the Zen Sect. In Middle Silla Dynasty Won-hyo's Creed with Hwa-en Sect, Bup-sang Sect was flourished. That is rich in contents, the study of Won-hyo, I-sang, Tae-hyun, Jin-pyo etc. Moreover it is concerned about their losed writings. The study of I-sang and Hwa-en Sect is concluded to relation with a sovereign power, doctrine, belief etc. The study of Buddhism in Late Silla Dynasty is concentrated upon Zen Sect. Their contents has the study of nine-mountain Zen-Sects and each, the study of a royal family and a powerful family is converted to Zen priest under the Late Silla conditions. That is connected the reserch to transtate and annotate of Zen priest's inscription on a grave stone. The bic issue is a difference of opinion that the role of Buddhism in Silla society was intimate or faint to be related with the sovereign power. Also Buddhist commandments view, writings, providing advice and suggestions as requested etc. And a lively belief has been brought to light to become popularized. The other issue is a Sects of Buddhism in the Middle and Late Silla Dynasty or an instroduction to Buddhism. Because a Buddhism in Silla society is a state religion, it is concerned a system of priest official and the temple's control agency. It is accomplished the study of present remained silla temple. And a life view, a matter of life or death and a female belief and life of Buddhism is also studied by many scholar.

[주제어] 신라 불교사 연구현황(新羅 佛敎史 研究現況, A study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assignment about Buddhism of Middle and Late Silla Dynasty), 중대 교학불교(中代 敎學佛敎, Budda's doctrine in Middle Silla Dynast), 하대 선종(下代 禪宗, Zen Sect in the Late Silla Dynasty), 왕권과 신앙(王權과 信仰, A sovereign power and belief), 종파불교(宗派佛敎, Sects of Buddhism in the Middle and Late Silla Dynasty)

I. 머리말

신라 불교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이 되는 유적, 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접근의 용이성과 자료의 확보성으로 논고가 양산되었다. 통일기 신라의 불교는 중대의 원

효교학의 완성과 화엄종 전교, 하대의 선종 전래로 획을 그을 수 있다. 중대의 교학은 원효교학이 화엄종, 법상종과 함께 교학불교의 번성을 이루었으므로 원효와 의상, 태현과 진표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저술된 많은 저술들이 일실되었으므로, 이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대의 선종은 9산선문과 개별산문이 호족 내지 왕실과 결합된 사실이 나말여초의 변화상과 맞물려 연구된 바 있는데, 이는 곧 선사비문의 탐구로 이어져 번역과 주석 작업이 잇달아 일어났고 이에 힘입어 정치, 사회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라사회에 불교가 유입되어 신라 불교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과 설화가 생겨나 그 내용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불교가 오래 전해지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금석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남아있다. 이러한 자료상의 특성과 한계 때문에 신라불교에 대한 고찰에 있어 정치권력과 관계 내지는 사회사상으로서 기능하였던 측면에서의 연구와 불교본연의 교학연구와 수행, 저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곧 신라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이 국가권력과 긴밀했는가 미약했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를 노정시켰고, 특히 지배층과 승려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논고들이 계율관, 저술, 자문역 등의 고찰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불교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정토신앙,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미륵신앙 등이 별개의 연구주제로 삼아져 신라사회의 일면을 불교의 대중화라는 점에서 밝혀주었다. 또한 불교의 유입이 중국을 통해 법상종, 화엄종, 밀교, 선종 등 다양한 종파 형태로 들어와 신라에도 종파불교가 형성되었다는 견해와 이를 회통시켜 통불교적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도출되어 있다.

신라의 불교가 국교였다는 사실은 승관제와 함께 불교통제기관의 규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여러 논고가 나왔으며, 근래까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신라의 천도문제와 관련하여 7처가람설이 언급되었다.

신라의 유적 가운데 사찰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졌고, 개별 사찰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역적인 고찰이 있었다.

최근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으로 신라 불교의 생명관, 생사관, 죽음관 등이 연구대상이 되었고, 여성사의 일환으로 신라 여성들의 신앙생활과 비구니들의 수행모습이 고구된 바 있다.

II. 신라 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신라 불교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초기에는 승관제와 불교정책(이흥직, 1959), 그리고 정토사상(안계현, 1961)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개론적인 연구에 힘입어 1970년대에는 신라 중대에 교학불교 특히 화엄종이, 하대에 선종이 유행하였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언급되면서, 중대의 화엄종과 하대의 선종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라 중대의 화엄종이 전제왕권의 사상적 뒷받침을 해 주었다는 이기백(1972)의 견해와 중대 교학불교에 대한 반성으로 하대에 선종이 유입되어 9산과를 이루었다는 최병현(1972)의 연구, 낭혜, 순지 등 신라 하대 선사들의 선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김두진(1973)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 연구들에서 신라의 화엄종이 중대 문무왕의 정치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과 선종이 하대 변혁사상으로서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신라의 법상종과 신인종에 관한 연구가 미술사적 측면에서 문명대(1974, 1976)에 의해 고구되었다.

신라 중대 화엄종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 김상현(1984)이 이기백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와 함께 고익진, 김복순, 김두진(1992), 전해주(1988), 정병삼(1991) 등이 신라의 화엄종과 화엄사상, 그리고 의상에 대한 논고를 내었다. 이 논쟁 이후 신라의 화엄종에 대한 연구가 증폭되어 신라 중대는 물론 하대의 화엄종에까지 논의가 넓혀졌고, 원효와 의상의 화엄사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또한 신라 중대의 화엄종과 함께 유가계통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역사학계와 불교학계, 철학계의 논의가 서로 참고되고 인용되면서 논문의 깊이가 더해져 가게 되었다.

신라의 정토신앙에 대한 연구는 아미타신앙 등으로 이어져 미륵신앙, 관음신앙 등 신라 중, 하대의 귀족은 물론 서민들의 신앙 형태가 연구되어졌다. 일반민들의 신앙에 관심을 보인 연구로는 정토신앙, 아미타신앙, 미륵신앙, 관음신앙의 연구가 나왔다. 안계현과 이기백의 정토신앙과 김영미의 아미타신앙, 김혜완과 김남윤의 미륵신앙, 김영태, 정병삼의 관음신앙 연구가 있다.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승관제에 대한 연구가 왕실사원(이영호, 1983), 성전사원(채상식, 1984) 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불사조영체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불교가 신라의 지배이념으로 자리하면서 사찰과 승려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승관제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어졌는데, 근래에는 이수훈(1990), 박남수(1995), 정병삼, 곽승훈(1995)에 이어 남동신과 윤선태(2000)까지 가담하

면서 연구가 증폭되어진 바 있다.

원효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통불교 내지 회통불교, 화쟁불교 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신라 불교의 종파성에 대한 논의를 무색케 하였다. 이에 학파불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의상의 화엄종. 명랑의 신인종. 진표의 법상종. 선종 등을 들어 다양한 종파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신라의 불교연구 역시 일반사 연구와 같이 자료의 발견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신라 중고기의 연구가 금석문의 연이은 발견에서 고조되었다면, 신라 중.하대의 불교 연구는 금석문의 판독과 번역, 역주 등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되었다. 황수영과 허홍식에 의한 금석문 자료의 수집과 판독, 이지관에 의한 신라 고승비문 역주, 한국역사연구회의 나말여초 선사비문의 역주작업이 그것이다. 이 고된 작업은 개별 고승과 선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금석문 자체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시킨 점이 있다.

신라 중, 하대는 많은 고승들이 배출된 시기로서 개별인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원효와 의상, 원측과 무상, 태현, 혜초, 무루 등의 입당구법승, 낭혜, 순지, 진감 등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의상에 대한 연구는 김상현, 김복순, 전해주, 정병삼, 김두진이 각기 단행본을 내어 정리하였다. 원효에 대한 연구는 이기영의 원효의 세계관에 이어 이종익, 은정희, 이평래, 김성철 등 불교학자들의 연구와 남동신, 김상현 등의 연구가 역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많은 연구로 원효의 화쟁사상은 연구사로 정리까지 하였고(김상현, 1995), 신라 중대 불교의 성립을 원효교학의 완성으로 보는 입장(남동신, 1998)과 신라 중고기 불교의 완성태이자 중대 교학불교의 변성을 알리는 단초로 원효를 들고 있기도 하다(김복순, 2005).

원측과 무상, 태현은 정영근, 고영섭, 이만 등 불교학자들과 김남윤, 남무희 등이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었고, 입당구법승과 선승에 대해서는 여성구, 정성본, 조범환 등의 연구가 돋보인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라의 사찰과 유적, 유물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불국사, 석굴암, 황룡사, 분황사, 흥륜사, 성주사, 삼화사, 금산사, 화엄사 등 신라의 불교사원에 대한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지방사연구로 연장되어 『강원불교사연구』와 같이 일정지역의 불교사를 점검한 연구가 여럿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한.중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 특히 불교문화유적지를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에 따라 중국 선종사와 연관된 신라 선종 내지 중국 내의 신라 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또한 무상, 지장, 장안의 중남산, 적산법화원과 관련된 내용이 정성본, 김훈, 변인석, 김문경 등에

의해 고구되어졌다. 그리고 신라 구법 유학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역주와 이를 이용한 논고가 여럿 나오기도 하였다.

불교의 계율에 대한 연구로는 최원식, 채인환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면서 불교의 생명윤리, 계율, 생사관 등이 부각되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사의 일환으로 신라 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관에 관심을 고려와 조선으로까지 확대하여 여성사의 측면에서 불교를 이해하기도 하였다(김영미, 1995). 그리고 신라의 전불시대 칠처가람설을 중대말 하대전반기에 왕실과 승려들에 의해 초전불교를 강조하기 위해 신라불국토 사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신동하, 2000)와 근래 고대 왕경의 천도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한 신라 귀족들에 의해 형성된 설로 이해한 논고(김복순, 2005)가 나온 바 있다.

Ⅲ. 왕권과 신앙, 그 상관 관계

신라 불교에 관한 연구는 그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연 여러 쟁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라의 화엄종은 여러 쟁론이 있었던 부분이다. 화엄종이 신라 중대 왕권을 뒷받침해 준 사상이었느냐는 문제에서부터 의상이 왕경의 사찰에 주석하였는가 하는 문제 등 다양한 쟁론을 가지고 있다.

신라 중대 화엄종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 김상현(1984)이 이기백의 개설서에서 언급한 견해인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융사상이 중대왕권의 전체성 강화를 정신적 뒷받침을 하였다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촉발되었다. 즉 초세속의 종교이념을 세속의 정치이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 문제는 1988년 제140회 한국사월례발표회에서 김복순이 「신라 중대 화엄종과 왕권」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기백, 김상현, 김지건, 최병현이 토론에 참가하므로써 공식적인 논의가 표출되었다. 이 논고에서 신라의 화엄종이 중대보다는 하대의 왕권과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 논쟁 이후 신라 중대의 왕권과 화엄종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 논고와 이를 부정한 주장으로 나뉘게 되었다. 전자의 김두진(1992)은 의상의 화엄교학과 황복사 주석 등을 들어 중대 왕권과 밀접히 연관되었음을 횡진법계관과 성기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의 관련을 부정하는 입장은 유교를 지목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견해(김상현, 정병삼)와 유가유식계통의 불교가 중대 왕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김복순)로 나뉘어져 있으나, 신라 화엄종에 대한 연구는 계속 증폭되어 의상과 원효의 화엄사상

에 관한 연구와 의상 개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근래 의상의 화엄사상과 전제왕권을 연결시켜 보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鎌田茂雄의 중국 화엄종 연구배경을 밝힌 남동신은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의의는 정치이데올로기가 아닌 화엄사상의 평등성에 의거하여 교단 내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당시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방민과 하층민을 중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石井公成의 「화엄철학은 어떻게 일본의 정치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하는 논고가 최연식에 의해 번역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의 한국 화엄학 연구동향에 대해 조윤호, 佐藤厚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한국불교연구동향에 대한 역사와 전망의 한 장으로 살펴보고, 김천학이 일본에서 의상을 연구한 23명의 63편에 달하는 논문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최연식은 국내의 의상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연구사와 쟁점, 과제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논고들과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화엄사상과 왕권과를 연결시켜 보는 논쟁의 핵심은 의상의 행보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의상이 중국 유학 이후 왕경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가 하는 점과 의상의 많은 제자들이 과연 왕경불교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의 규명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황복사와 관련된 내용과 경덕왕대의 인물인 표훈의 규명에 있다고 생각된다. 『화엄경문답』, 「백화도량발원문」 등 의상 저술의 진위문제라든가, 의상의 화엄사상과 신앙, 사상의 계승(최연식)은 이 문제들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새로이 읽어야 할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의상의 출가사찰로 나오는 황복사에는 의상이 주석하여 표훈에게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704년에 작성된 「황복사 금동사리함명문」에는 702년에 입적한 의상 내지 그 제자들, 표훈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의상과 그의 제자들은 부석산과 소백산에서 『화엄경』을 강하고 배우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고, 문무왕의 토목공사를 반대하면서 기층민을 위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보급하고 있어, 왕과 공경대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펼쳤던 백고좌회의 강경승이나 국통들과는 그 활동상에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근래 일본의 고대 화엄불교에 원효와 법장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밝힌 논고가 있다.(최연식, 2003) 이는 왕경불교의 일본 전래라는 견지에서 보면, 의상보다는 원효와 법장관계 장소가 왕경의 화엄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로 나오기도 하지만 역사상 경덕왕 대의 대덕으로 나오고 있어 그의 생년에 대한 연대가 문제가 된다. 표훈이 의상과 만난 해인 상원(上元) 원년의 연호를 760년(당 숙종, 신라 경덕왕 19년)의 연대가 있음에도 674년(당 고종, 신라 문무

왕 14년)으로만 보고 760년은 전혀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표훈이 경덕왕대 인물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상의 직제자라는 사실에 얽매어 674년 설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표훈은 나이가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의상의 손제자인 신림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두 문제가 좀 더 정확히 밝혀진다면, 의상과 동 시기 불교계와의 관련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라 중대 불교의 성립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원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라불교사상 연구의 반 이상이 원효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논고가 있다. 이기영(1967), 이종익, 조명기, 김지건, 은정희, 고익진 등 불교학자들에 의해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 등 그의 저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근래 남동신(1998)과 김상현(1995) 등의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관점으로 원효를 이해하면서 사상사적 의의를 언급한 바 있다. 그 하나가 중대 불교의 시점을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찬술한 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원효는 신라 불교계의 사상적 흐름을 계승하고 현장이 전한 신유식과 의상의 화엄사상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완성된 교학체계를 구축하였는데, 7세기 동아시아 불교계의 최대의 과제였던 신·구역 불교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관점에서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는 것이다. 반야공관의 입장에 선 『금강삼매경』은 진경설, 중국성립설, 신라성립설이 나와 있다. 남동신은 신라성립설에 힘입어 신라의 대안을 비롯한 대중교화에 뜻을 둔 일군의 승려들이 범행장자를 주요 등장인물로 하여 편찬하였는데,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의 체계를 빌어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여 신유식과 화쟁시키고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중대불교의 성립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또한 김복순(2005)은 신라 중대 불교를 살피면서 원효는 『판비량론』(671)을 통해 현장의 신유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불교학자들을 비판하는 한편 신라 불교교학의 우수성을 천명함으로써 후대까지 ‘분황의 진나’로 칭송받게 되었으며, 중대 불교교학의 변성을 연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신라불국토설의 연장으로 왕경의 전불시대 칠처가람설을 정립시켜 신라 불교의 독창성을 내세운 것으로 보았다.

신라 중대 사회사상으로서의 불교의 역할은 왕권과 사회, 국가권력과 승려의 문제가 있다. 신라 불교계는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었고, 승려들은 그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본 김영미는 국가권력이 전국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왕권에 배치되는 불교는 존재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불교통제기관의 불교계 장악과는 달리, 포산의 반사와 첩사 같은 은일

사를 비롯하여 해공과 혜숙, 연희 등과 같이 오히려 국가에서 그들을 포용하는 등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교와 국가권력과의 종속관계와 관련하여 의상의 행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의상이 국왕이 하사한 토지와 노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에 종파불교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각기 논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화엄종, 법상종, 유가종, 선종 등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종파불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고려부터 종파불교를 인정하여 신라의 경우 학파불교를 내세우고 있는 허홍식(1983)의 경우에도 신라의 화엄종과 법상종의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어 역시 종파불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원효를 대표적 인물로 내세워 통불교를 주장한 배경에는 신라불교의 통화성과 요약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회)통불교는 최남선이 ‘통불교’라는 용어로 원효의 불교사상을 정의한 이래 박종홍, 조명기, 이기영에 의해 더욱 부각되면서 별다른 비판없이 쓰여져 온 용어로 초종파적, 초국가적, 범인류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룡, 길희성의 비판이 있었고, 이봉춘, 조은수로 이어지는 논쟁이 있었다. 이는 원효사상에서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특성을 찾으려는 데서 온 현상으로써, 신라 불교에 보이는 다양한 모습이 밝혀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종파나 학파보다는 계파(系派)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김재경)도 있다.

신라 중대의 불교통제기구로 나오는 사원성전에 관한 연구에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홍직(1959)의 연구에 이어 성전사원을 중대 왕실의 원당으로 봉사(奉祀)를 수행한 관사적 기능이 강조되고(이영호, 1983), 중대 성전사원을 불교계를 통제하는 승정기구로 보기도 하였다(채상식, 1984). 또한 사료에 나오는 정관과 정법전을 같은 기구로 이해한 이홍직, 이수훈(1990), 정병삼의 견해와는 달리 서로 다른 기구라든가 혹은 계승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변선웅, 곽승훈(1995), 中井眞孝, 박남수(1995) 등의 주장도 있다. 또한 원성왕대에 정법전이 설치되면서, 정관인 실무관원 대사와 사를 승려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주목을 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신라 하대에 불교계가 확대되었으므로 국가가 승려들의 자율적인 면을 인정하여 관원을 승려로 임명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수훈, 1990; 박남수, 1995)과, 중대 말기 귀족들의 지방 이주에 따른 잦은 불사로 인한 세력형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왕이 설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곽승훈, 1995; 채상식, 1984). 곽승훈은 특히 재행있는 승려를 교학에 밝은 화엄종 계통의 승려로 보고, 정법전 승관과 황룡사 승려를 연관지어 보았다.

즉, 정법전의 승관에 임명된 승려들은 주로 황룡사 출신의 승려로서 화엄교학에 조예가 깊었던 승려로 본 것이다.

근래에는 신라의 국가의례와 관련하여 사원성전의 기능을 살핀 견해(윤선태, 2000)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원성전은 불교적 국가의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봉사(奉祀)’관련 관부로 파악하였다. 즉 신라 중대 왕권은 당의 정관례를 기초로 하여 오묘제 이하 대사. 중사. 소사의 국가의례를 완성하였는데, 국가의례를 위한 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었던 성전사원은 중사(中祀)와 관련된 제장(祭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본 것이다.

신라 불교에서 신앙과 신앙결사는 민간의 신앙을 알 수 있게 해주어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중대에는 아미타신앙, 정토신앙, 미륵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등이 개인적으로 혹은 결사의 형태로 행해져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신라의 아미타신앙은 안계현, 김영태, 문명대에 이어 김영미, 김재경 등에 의해 깊이있게 고구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신라 중대와 하대의 아미타신앙은 종파에 관계없이 널리 행해졌으며, 특히 신앙사례가 경덕왕 대에 집중되어 있어 전제왕권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문명대). 또한 아미타신앙을 무열왕의 등장과 관련시켜 보기도 하였다(김재경, 1982). 아미타신앙이 민생안정을 통한 왕권강화를 추구하던 중대왕실과 관련되어 사상적 뒷받침을 해 준 것으로 파악한 김영미(1993)는 이어 불성론을 아미타신앙과 연관지어 일반민들도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를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토왕생이 권유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원효, 법위, 의상, 의적 등이 일반인에게 아미타신앙을 권유하면서 성불가능성과 극락왕생을 강조하여 통일기 신라의 변화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승려들의 인간관, 현실인식 등에까지 관심을 확대시키고,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은 현실의 신분제도를 합리화한 것으로 보았다.

신라의 관음신앙은 신분에 관계없이 두루 나타나며, 현세 이익 위주의 현실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병삼). 특히 의상 이후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보아 그의 「백화도량발원문」이 주목되어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다.

신라에서의 신앙결사로 만일결사 등 수행단체가 결성된 것에 주목하여 신라인의 신앙형태가 연구되었다. 민간의 신앙형태가 왕실에까지 이어져 사경, 독경과 같은 화엄결사 등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산동의 적산법화원에서의 법회 모습이 밝혀져 해외에서의 신행 형태가 알려지기도 하였다.

신라의 법상종에 대해서는 문명대에 이어 김남윤, 김복순이 주목한 바 있다. 법상종, 유가종, 유가계 등 그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중(문명대, 1974), 태현(김남윤, 1984),

진표(김복순), 순경(김상현), 의적(최연식, 2003) 등을 법상종의 종조로 내세운 의견들이 개진되어 있다. 신라 중대 법상종 승려들이 미륵신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은 오형근, 김남윤 등에 의해 천착되었다. 인도의 무착과 세친에 의해 확립된 유가유식사상은 현장이 들어와 역출해 낸 『유가사지론』, 『성유식론』 등의 신유식과 이전에 들어와 있던 『섭대승론』의 구유식이 신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므로, 신라승들은 이들을 모두 섭렵하여 광범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많은 주석서를 내었다. 이들은 서명학과 내지 자은학파로 분류되기도 하고, 원효와 같이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현장 등 중국 불교학자를 비판하여 동아시아 불교계의 한 획을 그은 이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최연식(2003)은 의적을 현장의 문인으로 보고, 의적이 『성유식론』에 대한 주석서를 남김으로써 신라 법상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즉 그의 저술은 원효와 태현을 연결하는 신라 법상종의 중심적 맥에 있으며, 금산사에 주석하여 진표의 법상종에 유식학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법상종의 종조로 도증, 신방, 의적, 태현, 진표가 등장하는 것은 원측의 서명학과 규기의 자은학파를 비롯한 유가유식계통의 불교가 원측의 제자인 도증의 귀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신라에 유입되면서 일가를 이룬 이들이 많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들의 많은 저술이 입증하는 바로서 근래 이들의 일실된 저술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명한 논고들이 보고 되고 있다(김상현, 이만, 1990-1992). 이에 경덕왕대에 이르러 태현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유가조로, 진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법상종의 조로 추앙받음으로써, 신라의 법상종은 태현과 진표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신라에 뿌리내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의 계율에 관한 연구는 최원식(1996)에 의한 범망경보살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돋보인다. 승장, 의적, 태현, 원효의 보살계관을 꾸준히 규명한 최원식은 이를 근거로 성격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 원효가 현장(玄奘)의 불교에 민감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에서 새로이 주목받게 된 유가계와 수.당대에 널리 연구되고 있던 범망계와의 조화.융회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여, 최초로 보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살계사상을 본격적으로 신라사회에 수용,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라 승려들의 범망보살계를 보는 시각은 『유가론』에 의지하여 유가계에 토대를 두고 『범망경』을 이해한 승장, 의적, 태현과 특정 경론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주석한 원효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보살계는 일반사회에 널리 유통되었고, 실제 보살계를 받은 재가신자도 많았다. 보살계사상은 국왕과 집권자들에게는 왕권의 합리화와 안정에 이용할 수 있었고 선정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골품제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에게 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정신적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불의 조화와 효순 사상이 강조된 것으로 보았다.

신라의 밀교는 명량 이래 혜통, 혜초에 이어 의림, 불가사의, 혜일 등에 의해 애장왕 대까지 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래되었다. 『관정경』, 『금광명경』, 『대일경』이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며, 새로이 역출된 밀교경전들이 속속 신라에 유입된 상황이 문명대(1976), 고익진, 홍윤식, 정병삼(2005) 등의 논고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라 불교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밀교적 성격은 여타의 종파, 신앙과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어 명확히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호국과 관련되어 주로 탑에 경을 봉안한 다라니신앙과 치병과 관련된 약사신앙, 그리고 화엄 신중신앙 등이 유행하였다. 특히 오대산의 신앙결사는 불공(不空)에 의한 밀교의 전개와 정관이 밀교의 금강만다라의 세계관을 근거로 교의를 확립한 이후에 생겨난 것이므로, 신라에 청량 정관의 『화엄경소』가 전해진 799년 이후 오대산의 화엄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고(김복순, 김두진), 자장의 문수신앙을 근거로 성덕왕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종원, 정병삼).

신라 중대 유학승으로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그의 생애에 불분명한 부분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 인물은 원측이다. 원측에 대해서는 조명기, 박종홍, 오형근, 신현숙, 고익진, 정영근, 고영섭 등 주로 불교학자에 의해 그의 유식사상이 심도있게 고구되었다. 역사학 쪽에서는 김남윤(1984)이 신라의 법상종 성립과정에서 고찰하였고, 남무희, 권덕영에 의해 그의 씨족 연원과 신분, 저술활동과 역경 참여 그리고 입당과 귀국 등이 다루어진 바 있다. 원측은 대개 신라 왕족일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치원의 「취일문」에 무게를 두어 신라 서울의 모량부인으로 6두품 내지 5두품을 가진 손씨일 것으로 추측한 견해가 있으나(권덕영, 1992), 최근 원측을 북연출자의식을 표방하는 모량부 박씨 왕족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본 견해도 도출되어 있다(남무희, 1999). 또한 불국사의 삼성강원에 나오는 원측의 존재로 3인의 원측을 상정한 견해(김영태)도 있으나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한중 불교문화의 교류로 신라승들의 유학지와 장안의 종남산에 대한 내용이 변인석, 陳景富 등에 의해 많이 밝혀졌으며, 특히 적산법화원의 내용이 『입당구법순례행기』와 관련하여 신라소, 신라방과 같은 교민사회와 구법유학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당구법승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고국에 돌아오지 않은 혜초, 무상, 지장, 무루 등 성덕왕 대부터 경덕왕 대까지 활동했던 승려들에 주목한 여성구(1990)는 그 가운데 무루를 성덕왕의 아들로 추정하고, 당 장안 백초곡에서 밀교계통의 보승불을 칭념하며 수행하다가 숙종의 꿈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그의 행궁에 머물다 입적한 것을 밝히고 있다. 혜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그의 저술에 대한 역주(정수일)도 나오고, 고병

익의 고전적 연구에 이어, 그의 불교사상을 알 수 있는 논고들이 새롭게 조명된 바 있다(정병삼, 2005).

신라 하대의 선종 연구는 최병현, 김두진에 의해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그 기초가 쌓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교와 권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주로 하대의 선승들과 호족과의 관계를 논하는 내용의 논고들을 양산하였다. 즉 신라 하대 선사들을 대개 지방 호족과 연결되어 개혁성향을 지닌 육두품과 함께 신라말 고려초의 변혁세력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후 한기두, 김영태, 고익진, 추만호 등에 의해 선사상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중국 선종의 성립사를 연구한 정성본은 신라선종을 형성문제와 선사상, 참구설, 정중무상, 위양종선풍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함으로써 신라 선종연구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그러나 선종과 권력과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바 선종의 승려들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연계된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써, 초기에는 호족 일변도로 설명되어 왔다. 최병현에 의해 주장된 성주사 개창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거론된 김흔의 경제력에 대해 김양 세력이 연계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승들의 비문에 의하면, 선승들과 호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왕실과의 관계도 여러 사례가 보이므로 이를 관계시킨 논고도 나오게 되었다(고익진, 한기문). 최근에는 선사들은 선종의 흥포를 목적으로, 왕실은 인심수렴의 차원에서 서로 간에 탄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조범환). 그 동안 낭혜와 왕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약한 정도로만 이해하거나 유교경전을 인용하여 왕에게 조언한 것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그는 세 번이나 왕을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왕이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시무책도 제시를 한 것이다. 이는 낭혜와 왕실이 서로 탄력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선종 9산문을 13산문 정도가 되는 것으로 비판한 논고도 있었다(허홍식).

선사들의 신분에 주목하여 특히 낭혜의 득난조에 주목한 논고가 있다(남동신). 낭혜의 신분이 육두품인 것은 그의 부친인 김범청이 김현창의 난과 관련되어 족강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왔는데, 낭혜가 출가한 것은 812년이고 김현창의 난이 일어난 것은 822년이므로 김현창의 난으로 말미암아 육두품으로 족강되었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남동신).

신라 하대의 선종은 자료가 풍부한 만큼 개별 산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낭혜와 성주사, 순지, 도선, 범일과 굴산사, 혜소, 동리산문, 가지산문, 사자산문, 봉림산문, 회양산문 등이 최병현, 이개표, 박정주, 최인표, 조범환, 김영태, 김복순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가운데 낭혜와 성주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양조의 국사로

서 활약한 낭혜의 위치와 비문내용의 풍부성 등이 작용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성주사가 성주산문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을 성주사에서 많은 문도들이 배출되었고 또한 많은 잡색인들과 노비들이 있었던 것에만 관심을 두어 왔는데, 이는 산문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종은 사자상승이라는 독특한 전법형식 때문에 법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회양산파인 도현의 비문과 그의 법손인 체징의 비문이 기록한 법맥이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달리 기록되어 있어, 체징에 이르러 법맥을 고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김영태) 이는 신라에서 북종선이 남종선에 합쳐져 가는 현상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근래 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반에서는 금석문 강독을 끝내고 선사비문을 통해 본 나말여초 불교에 대한 논고들을 내었는데, 선사들의 계보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변조사 실에 주목한 바도 있다(김영미).

또한 9-10세기 신라 유학승들이 중국 유학 당시 활동반경을 동선을 추적하여 고찰한 논고도 나왔는 바, 이들이 초기에는 오대산과 중남산으로 나아갔다가 점차 남종선의 선사들을 찾아 강서 내지는 호남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음을 고구하였다. 또한 종조인 석가모니의 권위를 찾아 인도를 여행하였던 경향이 조사가 대신하게 되면서 6조 혜능의 탑이 있던 소주 조계산을 찾게 된 상황을 선사들의 동선을 통해 확인하였다(김복순).

이상의 특징은 선사 개인의 생애와 사상 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주변적인 상황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신라 하대 역사 일반에까지 그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하겠다.

신라 하대의 불교에 대해서는 선종 일변도의 연구에서 벗어나 화엄종, 법상종, 미륵신앙, 밀교 등 다방면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화엄종은 선종이 교학불교를 비판하면서 버렸던 것으로 이해한 데에서(최병헌, 1972), 선과 교가 융섭하여 병립 내지 양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존의 교종과 새로 유입된 선종이 모두 왕실의 존숭과 신행의 대상이 되고 있어 중대 이래 화엄종은 화엄결사, 화엄사찰의 건립 등을 통해 그 세가 지속되었으며, 해인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익진, 최원식, 김복순, 김상현, 추만호, 조경시). 특히 화엄결사로 60화엄과 40화엄이 사경되고 선교일치적인 교관관을 가진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가 799년에 신라에 유입됨으로써 선사들도 화엄교학의 수학을 중요시하였다고 보고 있다(조경시, 1989; 김복순). 결국 신라 하대 선종과 화엄종의 관계는 선종이 화엄종에 영향을 주어 화엄교학 내에 선종의 중지를 포용하는 단계에서 선종이 화엄의 동일성 교학을 채용하는 융회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김복순).

신라 하대의 법상종은 당시 불안한 정세와 곤궁한 현실세계를 벗어나 이상세계의 도래를 염원하는 기층민들의 미륵하생신앙의 대두로 교학위주의 중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진표가 법상조의 조로 추대된 것은 하대의 이러한 정세와 관련되어 실천적인 수행이 인정된 결과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미륵신앙은 진표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의 미륵신앙이 어떠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기백, 김혜완, 김남윤, 윤여성, 김재경, 조인성 등의 논고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진표와 경덕왕 등 지배층과의 관련을 강조해서 보는 입장(김남윤, 1984)과 참법을 강조하여 계법(戒法)을 하층민에게까지 널리 편 것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기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진표의 출신을 중시하여 그를 백제 유민의 후예로 보고 백제부흥운동과 관련시켜 신라 하대 농민반란의 사상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조인성, 1996). 하지만 경덕왕 대의 진표로부터 진성여왕대의 농민반란까지의 150여 년에 걸친 시기를 바로 직결시켜 인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신라 하대 후기의 미륵신앙의 성행에 주목한 논고는 법상종(도피안사의 비로자나불조상기), 화엄종(삼화사 철불좌상명문), 선종(장안사 비로자나불배석각)의 내용을 들어 지방세력가와 하층민들이 말법사상과 결합된 미륵하생신앙에 의해 비로자나불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곽승훈, 2000) 신라 하대 후기에 나타난 미륵하생신앙에 주목한 것이나, 법상종의 진표와 궁예의 미륵신앙을 메우는 내용으로보다는 비로자나불의 유행 양상이 더 크게 와 닿고 있다.

근래 중대 말기 중앙귀족들의 불사활동에 이어 신라 하대 전기의 불사에 주목한 일련의 논고들을 낸 곽승훈은 원성왕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교계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정법전을 정비하자, 이에 승전들이 저술되면서 불교계의 독자성이 강조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가에서 고승추모비를 건립하여 서로 융화되는 상황을 고구하였다. 또한 흥륜사 10성의 봉안은 신라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상황에서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10성의 봉안이 고려 광종대 균여의 주동으로 조성된 것으로 그 시기를 내려보는 견해도 있다(신동하).

북한에서의 신라 불교연구는 최봉익에 의해 고구된 「봉건시기 우리나라에서의 불교철학의 전파와 그 해독성」을 주 교재로 하여 살핀 논고가 있다(김복순). 이에 의하면 통일신라의 불교사조로 해동종, 화엄종, 유가종, 선종, 인명학을 들고 있다. 원효의 해동종 불교철학과 의상의 화엄종 불교철학, 대현의 유가종철학을 3대 철학조류로 설명하고, 9세기에 이르러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선종불교철학이 연구되고 유포되었다고 보았다. 인명학에 대해서는 관념철학으로 인식하면서도 원측, 원효, 대현, 둔륜 등이 종.인.유의 3지식론에 의해 사상을 전개하였고, 인류지식의 내원을 현량과 비량으로 인

식하였으며, 부정의 긍정판단과 부정판단인 차진법에 주목하였다. 발해는 수론사상, 율종사상, 선종사상이 있었고, 승원, 지범, 법정, 도정, 무명, 도유 등의 승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불교연구경향은 불교로 인해 역사적으로 입었던 해독성의 강조와 유물론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의 긍정적 서술, 불교유물을 만든 장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신라사에서 불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숙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불교와 지배층 내지는 권력과 밀착되었다고 보고 그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천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신라의 불교가 국교였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을 적정하게 언급했을 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라에도 종파불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이를 회통시켜 통불교적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도출되어 있으나, 역사학자와 불교학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종교학 연구회 내지는 불교학연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미흡한 상태로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불교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되면서 사적으로 시기구분이 된 부분도 나오기도 하였다. 중고기 불교수용에 있어 전래기-과도기-수용기로 구분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중고기의 국가불교, 중대의 교학불교와 수행, 하대의 선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세분된 신앙형태 내지는 교학적인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신라 불교사에서도 금석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해석을 확대해 나간 특징이 보인다는 점이다. 금석문이 갖는 한계도 있지만, 당대의 현실감을 역사에 적용하여 보다 생동감있는 서술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금석문은 더욱 활용가치가 크리라 생각된다.

고대의 불교연구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통해 교류가 활발하였으므로 이 삼국의 불교를 비교해서 고찰해 본다면 정치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왕권과 관련된 사상적인 측면은 좀 더 분명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근래 주목되는 내용으로는 생명사상과 관련하여 한국 고대의 타계관, 생사관, 신체관, 영혼관, 죽음관, 천문관 같은 연구가 많이 나와 있다. 이와 함께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내용들이 좀 더 세밀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성불과 관련하여 오애설, 변성남자설과 같은 이론들이 등장하는 바, 이를 여성사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일반사회사로 확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목록

- 高翊晉, 「新羅 下代 禪傳來」 『韓國禪思想研究』,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4.
- 郭丞勳, 「新羅 元聖王의 政法典 整備와 그 意義」 『震檀學報』 80, 1995.
- , 「新羅 下代 後期 彌勒下生信仰의 盛行과 그 意義」 『韓國思想史學』 15, 2000.
- 權憲永, 「圓測의 入唐과 歸國問題」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上, 1992.
- 金南允,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1984.
- 金杜珍, 「朗慧와 그의 禪思想」 『歷史學報』 57, 1973.
- , 「義湘의 生涯와 政治的 立場」 『韓國學論叢』 14, 1992.
- 金文經, 「三國·新羅時代의 佛教 信仰結社」 『史學志』 10, 1976.
- 金福順, 「崔致遠의 「法藏和尚傳」 檢討」 『韓國史研究』 57, 1987.
- , 「新羅 瑜伽系 佛教-8·9세기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 1992.
- , 「신라 중대의 불교」 『新羅文化』 25, 2005.
- 金相鉉, 「新羅 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東方學志』 44, 1984.
- , 「新羅 誓幢和上碑의 再檢討」 『美術史學論叢』, 1988.
- , 「元曉 和諍思想의 研究史的 檢討」 『佛教研究』 11·12, 1995.
- 金英美, 「新羅 阿彌陀信仰과 新羅人의 現實認識」 『國史館論叢』 42, 1993.
- ,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관」 『여성신학논집』 1, 1995.
- , 「삼국 및 통일신라 불교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史論』 28, 1998.
- 金煥泰, 「義陽山禪派의 成立과 그 法系에 대하여」 『韓國佛敎學』 4, 1979.
- , 「佛國寺의 華嚴法師 圓測에 대하여」 『韓國佛敎學』 19, 1994.
- 金在庚, 「新羅 阿彌陀信仰의 성립과 그 배경」 『韓國學報』 29, 1982.
- 金惠婉, 「新羅 中代의 彌勒信仰」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88.
- 南東信, 「의상(義相)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 1996.
- , 「신라 중대 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21, 1998.
- 南武熙, 「圓測의 氏族淵源과 身分」 『北岳史論』 6, 1999.
- 文明大, 「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그 美術」 上,下 『歷史學報』 62, 63, 1974.
- , 「新羅 神印宗의 研究-新羅 密敎와 統一新羅社會-」 『震檀學報』 41, 1976.
- 朴南守, 「新羅 僧官制에 관한 再檢討」 『伽山學報』 4, 1995.
- 申東河, 「新羅 佛國土思想의 展開樣相과 歷史的 意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安啓賢, 「元曉의 彌陀淨土往生思想」 上,下 『歷史學報』 16, 21, 1961
- 呂聖九, 「新羅 中代 留學僧의 地盤과 그 活動」, 『사학연구』 41, 1990.
- 尹善泰, 「新羅의 成典寺院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2000.
- 李基白, 「新羅 五嶽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 , 「新羅時代의 佛敎와 國家」 『歷史學報』 111, 1986.
- 李 萬, 「法相 關係 論疏와 新羅人의 撰述書」 『佛敎學報』 27-29, 1990-1992.
- 李銖勳, 「新羅 僧官制의 성립과 기능」 『釜大史學』 14, 1990.
- 李永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 李弘植, 「新羅 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1959.
- 全海住, 「一乘法界圖에 나타난 義湘의 性起思想」 『韓國佛敎學』 13, 1988.
- 鄭炳三, 「義相 傳記의 諸問題」 『韓國學研究』 1, 1991.
- , 「慧超의 活動과 8세기 新羅密敎」 『한국고대사연구』 37, 2005.
- 鄭性本, 「唐土의 新羅僧 無相禪師의 生涯와 思想」 『韓國思想史學』 3, 1990.
- 曹庚時, 「新羅 下代 華嚴宗의 構造와 傾向」 『釜大史學』 13, 1989.
- 曹凡煥, 「朗慧 無染과 聖住寺 創建」 『韓國古代史研究』 14, 1998.
- 조은수, 「‘통불교’담론을 통해 본 한국불교사 인식」 『불교평론』 21(6-4), 2004 겨울.
- 趙仁成, 「彌勒信仰과 新羅社會-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82, 1996.
- 蔡尙植, 「新羅 統一期의 成典寺院의 構造와 機能」 『釜山史學』 8, 1984.
- 崔柄憲, 「新羅 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 崔鉛植, 「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位相」 『佛敎學研究』 6, 2003.
- , 「일본 고대화엄과 신라 불교」 『한국사상사학』 21, 2003.
- 崔源植, 「新羅 菩薩戒思想의 性格과 歷史的 意義」 『佛敎史研究』 창간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1996.
- 秋萬鎬, 「나말려초 선사들의 선교양종 인식과 세계관」, 『國史館論叢』 52, 1994.
- 許興植, 「韓國佛敎의 宗派形成에 대한 試論」 『金哲堉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КСІ